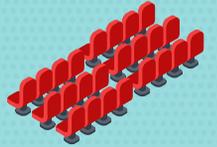


한숨 - 이하이(lee hi)



곡 설명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곤 해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숨'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한숨을 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 보기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Sum-eul keuge swi-eobwa-yo dangsin-ui gaseum yangjjok-i jeorige jogeum-eun apa-ol
ttaekkaJi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Sum-eul deo baet-eobwa-yo dangsin-ui an-e nam-eun ge eopsdago neukkyeojil ttaekkaJi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Sum-i beokcha-olrado gwaenchanh-a-yo amudo geudael tashajin anh-a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Gakkeum-eun silsuhaedo dwae nugudeun geuraess-eunikka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Gwaenchanhdaneun mal malppun-in wirojiman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Nugunga-ui hansum geu mugeo-un sum-eul naega eotteohge he-aril suga iss-eulkka-yo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Dangsin-ui hansum geu gip-il ihaehal sun eopsgessjiman gwaenchanh-a-yo

가사보기

내가 안아줄게요

Naega an-ajulge-yo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Sum-i beokcha-olrado gwaenchanh-a-yo amudo geudael tashajin anh-a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Gakkeum-eun silsuhaedo dwae nugudeun geuraess-eunikka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Gwaenchanhdaneun mal malppun-in wirojiman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Nugunga-ui hansum geu mugeo-un sum-eul naega eotteohge he-aril suga iss-eulkka-yo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Dangsin-ui hansum geu gip-il ihaehal sun eopsgessjiman gwaenchanh-a-yo

내가 안아줄게요

Naega an-ajulge-yo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Namdeul nun-en him ppajineun hansum-euro bo-ijjin molrado naneun algo issjyo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Jak-eun hansum naebaetgido eoryeo-un harureul bonaessdan geol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Ije dareun saenggak-eun ma-yo gip-i sum-eul swi-eobwa-yo geudaero naebaet-eo-yo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Nugunga-ui hansum geu mugeo-un sum-eul naega eotteohge he-aril suga iss-eulkka-yo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Dangsin-ui hansum geu gip-il ihaehal sun eopsgessjiman gwaenchanh-a-yo

내가 안아줄게요

Naega an-ajulge-yo

정말 수고했어요

Jeongmal sugohaess-eo-yo

문법학습

★ -(으)ㄹ 때까지

앞의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

노래에서 숨을 지나치게 많이 들이마시면 가슴 부근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까지 숨을 크게 쉬라고 하네요. 또한 '당신 안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까지 숨을 많이 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으)ㄹ 때까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 1 가: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어요.
나: 간단해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면과 스프를 넣으면 돼요.
- 2 가: 미나는 언제와? 곧 콘서트가 시작될 텐데.
나: 금방 올 거야. 미나가 올 때까지 음악을 듣자.

★ -아어 봐요

어떤 행동을 시도하거나 경험함을 나타내는 표현

'아어 봐요'나 '아어 보세요'처럼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 보라고 권유하거나 명령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답니다. 또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된답니다. 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과거의 상황과 함께 쓰여요.

- 1 가: 한국에 가면 무슨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나: 떡볶이를 먹어 봐요. 조금 맵지만 아주 맛있어요.
- 2 가: 시간이 많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중국어를 배워봐. 나도 요즘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